

또 새 해를 맞으며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돼지해는 WTO 출범 원년이기도 하다. 돼지해를 보내며 급변하는 속에서도 새 해에는 양돈가족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왜 새 해를 맞게 되고, 한 해를 보내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한 해를 결산하고 반성하며 새 해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새 해가 필요한 것 같다.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봄은 소년기로, 여름은 한창 자라나는 청년기로, 가을은 인생의 결실을 맺는 장년기로, 겨울은 인생을 결산하는 노년기로 비유된다. 결산 결과가 흑자 인생이어야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 최근 전직 대통령들이 인생을 결산하면서 그들에게는 금년 겨울이 더욱 춥게 느껴지리라고 생각된다.

성경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기준이 헌금을 많이 내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가,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었는가,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 보았는가? 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 뜻은 우리가 실행하기가 어렵지 머리로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을 결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하게 한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도시화되면서 장례 풍습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40~50대에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우리의 장례 풍습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국민학교때 등·하교 길에 상여가 가는 것을 보면 재수 좋은 날이라고 기뻐하였고, 한참씩 서서 또는 상여를 따라가며 구경하던 생각이 난다. 많은 문상객이 상여를 따라간다. 상여가 떠날 때 선도하는 요령잡이가 있는데, 그의 구슬픈 선도가에 상여꾼들이 화답하며 발을 맞추어 나간다.

요령잡이의 선도가는 이제 염라대왕의 심문으



그동안 은진미륵처럼

**버티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가 쥐의 해에는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은진미륵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이
들쥐떼라고 한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꿈쩍
도 하지 않지만, 쥐떼들이 밑에서 파들어
가면 아무리 은진미륵이라도
넘어지기 때문이다.**



로 시작된다. 염라대왕의 질문이 시작된다. 살았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주었는가?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었는가?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였는가? 로 시작된다. 아직 살아서 상여를 따라가는 모든 문상객과 상주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되니 우리 조상의 지혜가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구한말 한국을 다년간 외국인들이 한국처럼 인심 좋고, 나그네 거지를 잘 재워 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후하게 주는 나라는 없다고 한 것은 이런 사회교육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몇 일 전 한 모임에서 잔치에 거지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자칭 거지역을 맡아 폼바 타령을 하는 것을 보고 아직도 조상의 교육방법이 맥을 이어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교육개혁이란 말이 한창이다. 세계화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컴퓨터, 외국어에 능

통한 기능인을 양산하는 교육이 아니기를 바라며,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 하면서 아름다운 우리의 사회교육을 살려 나가기를 바란다.

새 해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서 가을에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한 해를 결산하고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밀림의 법칙만이 적용되는 사회에서 무슨 똥판지 같은 소리냐고 할 수도 있다. 혹자는 탈락할 사람들은 일찍 탈락해서 남은 사람이라도 살아야 된다고 하기도 한다. 오죽 답답하면 그러하겠는가? 약육강식의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농업을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해서 자연히 도태된 사양산업으로 체념하기도 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희망을 꺾고 힘을 빠지게 만든다.

새 해에는 총선 등 정치 일정도 있고, 국제 사료곡물 시장의 변화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다.

그동안 은진미륵처럼 버티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가 쥐의 해에는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은진미륵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이 들쥐떼라고 한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꿈쩍도 하지 않지만, 쥐떼들이 밑에서 파들어 가면 아무리 은진미륵이라도 넘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쥐떼들의 개별행동이 아닌 집단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얼마 전 미8군 사령관이 한국인을 들쥐떼에 비교하여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하여 후에 사과하였지만, 쥐를 지혜의 수호신으로서 우리 조상들은 긍정적인 면도 보아 왔다.

새 해 초 전국의 양축농가가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 과천에서 농민대회를 시작으로 새 해를 열어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새 해에 양돈업계가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결산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은진미륵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기를 바란다.